

무더위 날릴 갯벌 축제 2제

칠산 바다 잊지못할 추억 여행

영광 '천일염·갯벌축제'

오늘부터 3일간

빨배타기·음악회 등 행사

영광군이 29일부터 31일까지 염산면 백바위해수욕장에서 여름 대표축제인 '제7회 영광 천일염·갯벌축제'를 연다.

'칠산바다에 풍덩! 천일염 갯벌 추억여행'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우리나라 3대 어장인 칠산 앞 바다를 배경으로 갯벌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갯벌달리기, 빨배타기, 갯벌싸름, 기마전, 닭싸움 등 갯벌 스포츠와 백바위 생태체험, 염전체험, 머드풀장, 갯벌보물찾기, 조개캐기, 장어잡기 등이다. 또 야간에는 통기타와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영화상영 등이 열린다.

축제 장소인 두우리는 세계 5대 갯벌로 선정된 서해안 갯벌 중 게르마늄이 가장 많이 함유된 곳으로, 타지역 갯벌과 달리 계절적 변화에 따라 겨울이면 파도에 쓸려갔다가 봄에 다시 새롭게 갯벌이 생성되는 등 독특하고 신기한 정경갯벌로 유명하다.

또 염산면이라는 지역명칭에서도 엿볼 수 있듯 이곳 천일염 생산량은 전국 대비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간석지 갯벌 효과로 갈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 함량이 타지역 천일염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바위는 하얀 바위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이번 축제는 지역특산품인 천일염을 축제와 연계해 홍보 효과와 지역민의 소득 창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상호 축제 추진위원장은 "무더위를 잊고 추억 속으로 떠날 가족여행을 원하신다면 칠산 앞바다로 꼭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짱뚱어와 함께 시원한 여름나기

30일까지 신안 증도서

고기잡이·머드체험...

해송숲 해변선 패들 축제

신안군이 여름 시즌을 맞아 슬로시티 신안 증도에서 '신안 우전 짱뚱어 축제'와 '한여름 패들 스포츠 축제'를 연이어 개최한다. 또 신안군청 광장에서는 '2016 인동초 전국 국악대전'도 열린다.

28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30일까지 3일간 슬로시티 증도에서 '신안 우전 짱뚱어축제'가 열린다.

'자연과 사람의 조화와 공존'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증도 대표 관광지인 우전해변을 중심으로 고기잡이체험과 머드체험, 해송숲 걷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증도는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관광지 100선'으로 지정된 곳으로 연간 8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지이기도 하다.

증도 해송숲 해변에서는 8월 6~7일 이틀동안 '한여름 패들 스포츠 축제'도 펼쳐진다. 패들(Paddle)은 카약, 카누, 서프보드, 래프팅 등 노를 이용한 스포츠의 한 종류다.

축제 첫날인 6일에는 회화, 도자, 비즈공예 등 예술 체험 프로그램과 시네마 파라다이스, 재즈 콘서트, 텀고 등 피크닉 콘서트가 열리며, 둘째 날에는 동호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패들, 세일링, SUP, 카약 피싱 대회가 개최된다.

부대행사로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아트 캠프와 생생한 축제 현장을 기록하는 사진 촬영대회도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30~31일에는 신안군청 공영장에서 인동초 전국 국악대전이 준비돼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무안을 귀농어·귀촌 1번지로”...협의회 출범

회원 등 100여명 참석 발대식...郡 귀농인 지원사업 확대

무안군이 귀농어·귀촌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무안군 귀농어·귀촌 협의회가 발대식을 갖고 무안 발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무안군 귀농어·귀촌 협의회(회장 조병헌)는 "지난 25일 승달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박준수 무안부군수, 이동진 무안군의회 의장, 도의원 및 군의원, 농협 군지부장,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28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귀농인의 자주적 협동정신을 구현하고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 귀농어·귀촌의 최적지인 무안군을 적극 홍보하기 마련됐다.

박준수 무안부군수는 축사를 통해 "귀농어·귀촌지로 무안을 선택해 주신 만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꼭 성공적으로 정착 하셔서 앞으로 귀농어·귀촌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귀감이 돼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이날 발대식 후 귀농인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한편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일자리 창출,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 인력을 농업 후계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병헌 협회장은 "점차 늘어나는 귀농어·귀촌인이 무안군민으로 새로운 인생



무안군 귀농어·귀촌 협의회(회장 조병헌)가 최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박준수 무안부군수와 이동진 무안군의회 의장,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무안군 제공>

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단결·협력하고, 살고 싶은 무안군을 만드는 데 작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협회 출범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무안=임동현기자 idh@



정자서 듣는 영농애로 김준성 영광군수가 최근 2016 여름철 영농교육 현장을 찾아 농업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김 군수는 농업인의 건의사항을 균형에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불편민원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영광=이종윤기자 jylee@

신안 도초농협 천일염 저장시설 준공

3000t 보관 규모...홍수출하 조절 가격 안정 기대

신안군 도초농협(조합장 김경철)이 천일염 장기저장시설을 준공함에 따라 여름철 홍수출하 조절을 통한 안정된 가격 실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총사업비 17억3000만원을 투입해 도초면 수항리 일원에 들어선 천일염 장기저장 시설은 장고동 1882㎡, 관리동 98㎡로 건립됐다.

이 장기저장시설은 3000톤의 천일염을 일시에 보관할 수 있으며, 천일염이 본격 생산되는 여름철 홍수출하에 따른 천일염 창고부족으로 천일염의 산지가격이 급락하는 요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길호 신안군수는 준공식 축사를 통해 "세계적인 품질의 신안천일염이 그동안 저장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제 가격을 받지 못했으나 울연말까지 도초농협을 비롯한 천일염 주산지 농협 등 7개소에 저장시설을 확충해 천일염을 수매·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천일염 생산자들은 품질 좋은 천일염 생산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국내 천일염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천일염 주산지로, 854여 가에서 연간 23만톤을 생산해 6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신안군 '국제해양관광도시 대상' 수상

신안군이 울돌머 상복이 터져 군 공무원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싱글빙글 신명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최근 고길호 신안군수가 2016년 지방자치행정부문 대상과 환경경영부문 대상을 연이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고 군수는 또 지난 26일 열린 2016 대한민국 신뢰받는 공공혁신 대상 시상식에서 '국제해양관광도시 부문 대상'을 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시상식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섬 정책을 선도하고 2018년 새천년대교 개통과 흑산공항 개항에 따른 변화의 흐름에 대

비 다양한 정책을 수립 추진한 점이 높게 인정받아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군은 전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해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연륙·연도교 사업과 증도-자간간 연안여객선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21C 해양실크로드(십자형 도로망)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신안군지부 관계자는 "어려운 군정이 있으면 함께 협의하고 노력해 해결해나가는 적극적인 행정이 신안군에 상복을 가져다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세일글

“주민 눈높이 맞춘 ‘참여 치안’ 늘릴 것”

정성일 함평경찰서장

“주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중심 참여 치안활동으로 주민에게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제73대 함평경찰서장으로 취임한 정성일 서장은 28일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과 함께 경찰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 출신인 정 서장은 광주 진흥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간부 후보 44기로 경찰에 입문했으며, 서울영등포서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홍보기획계장, 대전정 홍보담당관 등을 지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토지, 6000평

투자 가치 확신합니다!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의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시세 - 33억원 / 매매 - 27억 (일시불 조정가)
- 계획관리지역 / 개발호재 많음
- 단기투자 최고지역!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소유자 H. 010-3627-8282